

# 원형탈모는 자가면역질환...신약 개발로 치료 전망 밝아져

## 건강 바로 알기 원형탈모

김민성

조선대병원 피부과 교수

외래진료를 하다보면 탈모 고민으로 내원하는 환자가 제법 많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거나, 두정부가 희히 보이거나, 머리에 동전 모양 같은 탈모반이 생긴다는 등 사연이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두피 전체에 원형탈모가 발생하는 전두 탈모나, 머리카락 뿐만 아니라 눈썹, 겨드랑이 털 등 몸에 난 털들이 모조리 빠지는 전신 탈모로 내원하는 환자들이다.

우리 몸에 나오는 털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특히 머리털은 자외선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이 적은 사람은 제 나이보다 5살은 더 들어 보인다는 보고처럼 외모에도 중요한 요소이다. 심한 탈모는 대인 관계 외에도 다른 사회 생활에까지 지장을 줄 수 있다. 조선대병원 피부과 김민성 교수로부터 원형탈모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원형탈모는 머리카락의 일부가 동전처럼 둥근 형태로 갑작스럽게 빠지는 것이 특징인 자가면역 질환이다. 주로 두피에 나타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눈썹·속눈썹·체모, 심지어 전신의 털까지 빠지는 전신탈모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세계 인구의 약 1.7%가 일생에 한 번은 경험하

전신면역기능 이상·영양상태 관련 면역 경로 조절 모발 재생장 효과 JAK 억제제·리틀레시티닙 등 주목 재발률 높아 꾸준한 치료·관리 필수

고, 국내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1년에 18만 명의 원형탈모 환자가 진료를 받았다. 주로 젊은 성인에게 나타나며 드물게 어린이나 노인에게도 발생한다. 특히 환자의 60%는 20세 이전에 첫 증상이 나타나며, 약 10%는 만성적으로 재발한다.

과거에는 스트레스가 주원인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원형탈모는 면역 체계가 자신의 모낭을 적으로 인식해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 분류된다. 면역세포가 모낭을 공격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탈모가 발생하는 것이 주요 병리 기전이다.

이 과정에서 갑상선 질환, 백반증, 아토피피부염 등 다른 자가면역질환과 동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혈액검사를 통한 면역항체나 갑상선 기능 검사가 권장된다. 또한 일부 환자의 경우 손톱에 작은 함몰이나 거친 변화, 비타민 D 결핍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는 전신적인 면역 기능 이상이나 영양상태가 원형탈모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작은 병변은 4~12개월 내 자연 회복되기도 하지만, 재발률이 높고 전두 혹은 전신 탈모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빠르고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원형탈모 치료의 목표는 질환의 활성도를 억제하고 탈모증상을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핵심은 모낭 주위의 면역 염증을 억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초기에는 스테로이드 외용제, 병변 내 주사, 미녹시딜 도포 등이 시행되며, 범위가 넓거나 국소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먹는 스테로이드나 cyclosporine과 같은 면역억제제, 접촉 면역 요법(DPCP), 엑시머레이저, PUVA 광선치료 등의 치료가 활용된다.

그리고 최근 가장 주목받는 치료는 바로 JAK (Janus kinase) 억제제이다. JAK 억제제는 원형탈모의 발병 기전에 직접 관여하는 면역 경로를 조절하는 약물로, 기존의 치료에 반응이 없던 환자들에게서도 모발 재생장 효과를 보여 원형탈모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지난 2024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바리시티닙(baricitinib)과 리틀레시티닙(ritlecinib)이 각각 성인과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증 원형탈모 치료제로 한국 식약처에서 승인되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약물은 기존 면역억제제에 비해 선택적이고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며, 치료 반응이 좋을 경우 일정 기간 이상 복용을 유지하여 재발을 막는 것이 권장된다.

다만, 높은 비용과 주기적인 혈액검사가 필요하며, 상기도 감염, 여드름, 고지혈증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어 전문의의 진단과 모니터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원형탈모는 재발이 흔하고 치료 반응도 다양하지만,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충분히 호전이 가능한 질환이다. 최근에는 치료법의 발전으로 예후가 상당히 개선되었고, 중증 환자에서도 JAK 억



조선대병원 피부과 김민성 교수가 원형탈모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제제 등의 효과적인 약물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해졌다.

다만 약 40%의 환자에서는 1년 내 재발이 발생할 수 있어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치료를 중단하면 갑작스러운 악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원형탈모는 단순한 외모의 변화만이 아니라, 환

자의 정신적 고통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질환이다. 그러나 최근 치료법은 계속 진보하고 있으며, 특히 JAK 억제제의 등장으로 치료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면역 질환으로서의 성격을 이해하며 꾸준한 치료를 받는다면 원형탈모 역시 극복 가능한 질환이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 전남대병원 “119안심콜 등록하세요”

### 중증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전남대병원이 지난 달 27일 병원 1·2·6·7동 1층에서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인 중증응급질환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119안심콜 서비스' 등록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

이날 캠페인은 김광석 공공부원장, 윤현주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공공의료협력팀 직원을 비롯해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광주 5개구 소방서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자·보호자·내원객을 대상으로 신고 요령 등이 담긴 홍보물과 손톱깎이 세트를 배부했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응급상황이 발생돼 119로 신고했을 때 사전 등록된 환자의 질병과 부가정보 등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출동, 응급환자의 맞춤형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진료가 가능한 급급서비스다.

또한 환자 보호자에게도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병원 이송내용 등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노약자 및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119 안심콜 서비스 가입은 인터넷 검색창에



'119안심콜'을 검색하거나 119 안전신고센터(www.119.go.kr)에 접속해 가입 후 등록이 가능하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 전남대병원 기승정 교수, '폐결핵 치료효과 조기 평가개발 연구' 선정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주관

전남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기승정(사진) 교수(의생명연구원장)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폐결핵 치료 효과 조기 평가를 위한 글로벌 바이오마커 개발 연구'에 선정됐다.



기승정 교수의 이번 연구는 결핵 치료 효과를 조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신규 글로벌 바이오마커를 개발해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 및 치료 성공률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치료기간 동안 변화하는 결핵환자의 임상 치료 및 생물학적 지표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글로벌 공통 활용이 가능한 치료 효과 모니터링 바이오마커를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된 바이오마커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방지하고 결핵의 재발률 및 내성 결핵 발생을 줄여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치료효과 모니터링 및 판정을 위한 임상적 및 생물학적 바이오마커 후보 발굴(1차년도) ▲폐결핵 치료와 연계한 치료 전·중·후 시기별 바이오마커 후보물질 변화 정보 분석(2차년도) ▲결핵환자 개별 임상정보, 검사정보 및 생물학적 지표와 융합한 종합적이고 글로벌 공통 활용 가능한 새로운 치료반응 모니터링 바이오마커 제안(3차년도) 등으로 추진된다.

이 연구는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진행되며, 총 6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기승정 교수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협력해 감염병 등 다양한 면역학적 기전과 바이오마커 연구를 지속해왔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단기 치료법 도입과 획기적인 모니터링 바이오마커 활용으로 결핵 치료기간 단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 전남대병원 조형호 교수, 스승의 날 교육부장관 표창

### 우수 의사과학자 육성 기여

전남대병원 이비인후과 조형호 교수(사진)가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조 교수는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개방형실협실 구축 사업단장으로 석·박사 학생을 지도했으며, 의료기술 사업화와 지도학생의 2024 대한민족 인재상 수상 등 우수 의사과학자 육성에 기여해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조 교수는 "의료 현장은 날마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과학적 사고를 갖춘 의사과학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학문과 실력을 겸비한 의사과학자 양성에 힘써 이들과 진로 및

의학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승원 기자 swseo@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